

전북권 신공항 부지, 새만금으로 가닥

도 “경협단지 조성권 연계 추진...美공군도 긍정적 반응” 세부사항 추가 논의키로...활주로 운용 통제권 걸림돌 우려

전북도가 전북권 공항 건설부지로 새만금을 유력 후보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새만금 공항 후보지 인근에 미공군 비행장이 있어 미군과의 원활한 협의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13일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이 새만금 마스터플랜에도 들어가 있고, 미군 측도 새만금내 공항예정 부지에 국제 공항과 활주로를 건설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부지나 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군산시의 ‘군산공항 국제선 협조요청권’에 대한 미 8전투

비행단지 명의의 회신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미 공군 측도 새만금에 민영 항로가 들어서는 데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산 서쪽(새만금 일대)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사항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새만금 지구 이외에도 김제시가 제시한 화포지구도 국제공항 부지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전북권 공항 건설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하되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권 연계해 국제공항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도의 호언처럼 새만금 지구 내 공항건설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전북도가 지목한 새만금내 공항 예정 부지가 이전 김완주 지사 때도 여러 차례 미군 측과 접촉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군산 미공군 비행장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부지에 대해 미군 측도 일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세부 협상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군 측은 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활주로 사용과 관련해 5년마다 미군 측과 협의의 하도록 했고,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군산공항내 기존 미군 관제탑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실질상 활주로 사용과 운용에 대한 통제권은 미군 측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완주 전임 지사도 결국에는

새만금내 국제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지난해말 옛 김제공항 부지에 전북권 공항 재추진 결심을 굳혔다는 후문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도 “전임 지사때도 새만금내 공항부지 사용을 놓고 미군 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미군이 내세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권 공항 건설은 꾸준히 국제선 여객이 늘고 있는 무안공항, 광주공항과 의 차별화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무안공항은 광주 등 전남 일부 지역과 호남권 등지의 여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칫 호남권 공항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산=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 소식

손양원 목사 순교 64주기 음악회

23일 여수 예술마루대극장

손양원 목사(1902~1950년) 순교 64주기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여수에서 열린다.

(사)손양원목사 기념사업회와 (재)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5시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손양원 목사 순교 64주기 기념음악회 ‘라 클레멘자(La Clemenza-용사)’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제 갈렙음악선교단(ICM) 단원으로 ‘순교자 손양원’ 창작 오페라에서 손양원 역을 맡은 테너 정의근을 비롯해 소프라노 하연주, 피아노 윤수미, 첼로 전경미, 바이올린 이선향, 비올라 이지선, 플루트 윤동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중 제4악장, ‘여호와 나의 목자 시니’, ‘신의 날’, ‘타이스의 명상곡’,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 ‘하늘 가는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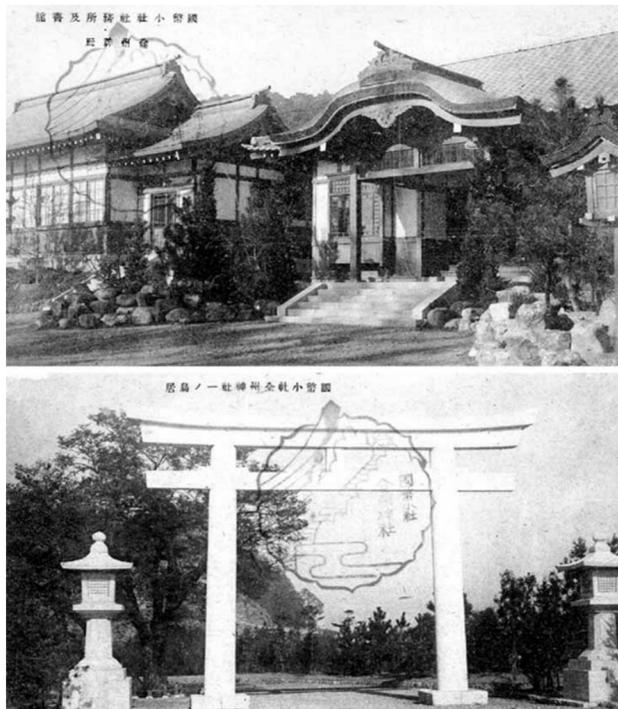
은 길이’ 등 손양원 목사의 희생·봉사·사랑·용서의 정신이 담긴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음악회를 추진한 중동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백강수 변호사는 “지난 2월 명예졸업장 수여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손 목사 순교자 여수에서 기념음악회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190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손목사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당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두 아들을 숨지게 한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아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다.

그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북한군에게 체포된 뒤 여수시 미평동에서 총살당했다. 서울 중동고 총동문회는 손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지난 2월 학교 측에 건의해 명예졸업장을 추도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일제시대 전주신사 엽서사진 공개

일제강점기 전북 도민과 학생을 강제 동원해 건립한 전주신사의 전경이 담긴 그림엽서가 공개됐다. 1943년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엽서에는 신사 전경(사진 위)과 신사 입구의 ‘도리이’(일본의 전통적인 문)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침략 자료 수집가인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이 전주문화원에 넘겨 공개됐다.

【연합뉴스

상가가 절반 ‘전주 한옥마을’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 될까

내년 결정...일부 요건 충족 못해 정체성 훼손돼 자칫상실 우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국내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은 내년 11월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 슬로시티연맹은 최근 슬로시티 지정 평가 항목을 종전 50여개에서 70여개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은 평가 항목 중 공해나 교통소음, 나뭇목(IC)의 자전거 주차공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숙박시설의 수용능력 확대 등 슬로시티로서 갖춰야 할 숙제들을 여전히 풀지 못한 상태다.

또 급격한 상업화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도 재인증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옥마을 일대 상업시설은 총 360곳을 넘고 있어 최근의 추세대로 간다면 조만간 이 일대 전통 한옥(600채)을 추월할 태세다.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 곳에 불

과했던 상업시설이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국 관광명소로 주목받으면서 관광객과 시민이 몰리자 한옥을 고치거나 빈터에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선 결과로 고조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옥마을 원주민들이 가파르게 급상승한 땅과 집을 팔고 이주하면서 상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이 일대를 주도하는 것도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자칫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러한 평가 항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서는 등 재인증을 위해 대책반을 꾸리고 시민의 관심을 독려할 계획이다.

재인증 평가 관련 업무담당자와 슬로시티에 관심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슬로시티 전주 서포터즈’는 재인증 실사에 대비하고 한옥마을을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슬로시티 자격을 잃지 않고 다시 지정되도록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광양경찰, 실종아동 현장대응 훈련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지난 7일 관내 대형 마트에서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 지킴(코드 아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현장대응 훈련(FTX)을 실시했다.

‘코드 아담’은 지난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로 발견된 아담 윌시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대형마트와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초기에 발견하는 제

도이다.

광양 관내에는 홈플러스, 드래곤즈 축구장 등 5개소의 다중 이용시설이 있다.

장효식 서장은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NAVER **단비플라워** 농협은행

죽아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근조화환3단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